

지역 매 아리

김제시,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추가 모집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청년·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사업(전북청년취업지원사업, 신중년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취업지원사업은 청년(만18~39세) 및 신중년(만40~64)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고용촉진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상시근로자 청년 3인 이상, 신중년 5인 이상)외에 추가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을 조건으로 일정 수준의 월 급여(청년 180만원, 신중년 175만원) 이상을 지급 가능한 업체이다.

서류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기업에게 매월 최대 1년간 취업지원금(청년 50~65만원/인, 신중년 70만원/인)을 지원하며, 사업에 참여할 취업자에게도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근로장려금을 2년간 3회(6·12·24개월 차) 총 300만원(신중년 2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 오는 8월 5일부터 김제시 경제진흥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30일까지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모집

완주군이 청년 농업인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완주군은 청년 농업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0년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2020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해 농업·농촌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발은 서면심사의 후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개소당 5000만원(국비 45%, 군비45%, 자부담10%) 사업비가 지원된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면 가능하다.

품목이나 기술요인에 제한은 없으며 신기술, ICT 활용, 가공, 관광, 벤처·창업 등 5개 분야로 오는 30일까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290-3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폭염대응 '총력'

폭염 T/F팀 운영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 열음·살수차·터미널 냉방기 등 주민안전 최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완주군이 관내 주민들의 폭염피해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지난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상황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농업축산관리지원반으로 구성된 폭염T/F팀을 운영해 폭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우선 삼례, 봉동, 이서 등 주요 교통섬 및 횡단보도에는 무더위 그늘막 4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봉동 터미널 주변 정류장 등 주요지점 6개소에는 열음을 비치했다. 삼례, 고산, 대둔산 터미널 대합실에는 냉방기를 가동해 주민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또한, 아스팔트 복사열 저감을 위해 관내 인구밀집지역은 살수차가 5개 노선을 운행하며 뜨겁게 달궈진 열기를 식히고 있다.



완주군은 아스팔트 복사열 저감을 위해 살수차가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가정방문과 안부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다.

또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매일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기상특보 발생시 문자서비스를 활용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전파, 주민들이 무더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됐다. 지난달부터 가축폭염대응 상황 근무에 나선 가운데 폭염특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 발송, 마

을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다.

농가 출장시 폭염대응 점검을 강화하고 폭염대응방법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동열 재난안전과장은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무더위에 취약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대책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보건소 등과 연계해 사회복지사, 지역자율방재단, 마을이장으로 재난도우미 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지속적인 폭염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폭염대비 살수차 긴급투입 운행

김제시, 시내권 주요노선 살수·승강장 열음비치 등

김제시는 태풍과 장마 이후 폭염특보가 발표되자마자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시내권 주요 노선에 물 뿌리는 작업을 실시해 도심 열섬현상을 낮추고 승강장에 열음을 비치하는 등 기상상황에 따라 날씨가 등 폭염대응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살수차 운행은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여 도로 복사열을 식히고 열섬현상 완화와 동시에 도로변에 쌓인 미세먼지를 제거시키고는 등 시원하고 건강한 김제시를 만들고자 모색한 것이다.

김제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9월까지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등) 발효시 시내권 주요 노선 20km에 하루 4~5회 살수와 승강장에 열음을 비치하는 등 기상상황에 따라 날씨 및 시간을 조정해 운영피해 방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폭염 특보시 시민들께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과 가축 관리 및 농작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2년(2019년8월1일 ~ 2021년7월31일)의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회계사 및 세무사와 지역현안에 밝은 사회단체장 등 10명을 위촉하고 당연직 2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했다.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제시의회의원 이병철 위원이 선출되었다.

한편 새롭게 선출된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본 위원회가 납세자의 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의결함으로써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지방세 산업단체에 입주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보건소, 찾아가는 금연건강캠프 실시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오는 6일 만경읍을 시작으로 백산, 금산, 죽산 등 관내 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에서 전북금연지원센터와 연계 지역사회협력을 감소와 흡연자의 금연시도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금연건강캠프'를 순회 실시한다.

평소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을 위해 직접 이장회의 및 마을을 방문하여 건강체크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금연도움 프로그램을 통한 금연시도 유도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찾아가는 금연건강캠프 프로그램은 1차 -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교육, 금연보조제 지원 및 일대일 개별 상담 진행 후 2차 - 동맥경화진단, 심방세동 체크, 혈압/혈당/체지방률 등 금연시도자를 위한 흡연에 대한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위한 전문의 확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9월에 있을 찾아가는 금연건강캠프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청년키움식당, '정오식탁' 본격 운영

4차 참가팀, 동파육덮밥·열무비빔밥 등 선보여

외식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구름관이 돼주고 있는 완주군의 청년키움식당이 4차 참가팀 운영을 시작했다.

완주군은 이날부터 전주대학교 외식산업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정오식탁' 팀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전주대 외식산업학과와 연계한 메뉴개발 동아리 학생들 중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이 팀은 '뜻밖의 동파육덮밥', '불맛은 제육덮밥', '비벼먹는 강된장 열무비빔밥', '오늘 두드린 돈까스', '바지락위에 물수제비' 메뉴를 선보인다.

메뉴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전체 국내산을 사용하며, 완주군에서 생산된 우리밀과 로컬푸드를 이용해 건강하고 든든한 메뉴를 개발했다.

청년들은 "배고픈 정오 시간에



완주군은 이날부터 전주대학교 외식산업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정오식탁' 팀이 운영을 시작했다.

재충전을 위한 든든한 한 상을 담았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운영에 돌입했다. 이들의 운영은 4주간 이뤄진다.

송이목 먹거리정책과장은 "외식창업의 경우 맛은 필수고 차별화된 아이템 선정이 급변하는 외식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점이 된다"며 "청년키움식당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감과 피드백을 받으며 청년들이 경험을 쌓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